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二十二面

叛軍의意圖는 自由共和國建設!

〔復辟運動도아니오 팟쇼運動도아니다〕

叛軍臨時政府總理카將軍演說

【부르고스(?)發】 西班牙北部叛亂軍은 臨時政府를 樹立하고 二十五日 카바네라스將軍이 同政府의 總理로 就任하엿는데 將軍은 數千의 婦女老人 아페서 如左한就任演說을 하엿다 余는 다만 臨時政府의 臨時總理에 不過하다 이政府의主要任務는 目下의 混沌한 時局을 打開하기爲한 軍事的指令을 準備하는데잇다 吾人의 運動은 王政復活도아니오 팟쇼樹立도아니다 余는 어데까지 共和主義者의 立場을 버리지안는다 余의 意圖는 全然 西班牙를 自由共和國 卽 反팟스主義共和國建設에 잇다 吾人의唯一의 關心은 보다더 强大한 西班牙의 建設에잇다 우리들이 마드리드에入城할것은 다만時間問題다

日本人은無異狀

【東京電話同盟】 西班牙革命에對한 矢野公使로부터의 第一報는 去二十二日 外務省에 到着하엿 會報이오 그後公使消息은 一切 判明되지안허 在留日本人의 安否가 憂慮되든바 二十九日 마드리드에잇는 高岡二等書記官의 第一報가 倫敦大使을 經由하야 外務省에 到着하엿는데 公使館及在留日本人은 安全한것을 確認하게되엿다 그리고 高岡書記官은 곳 西班牙外務省及 警視廳에 對하야 公使館의 警備在留日本人의 保護를 要請하엿다

英國下院 卅一日로休會

【倫敦二十八日發同盟】 英國下院은 二十八日下院에서 來三十一日부터 十月二十九日까지 議會는 休會에드러갈것을 言明하엿다 但、首相은 歐洲動亂勃發의 此際休假를中止하고 倫敦近郊의 카스에 머물러 五國會議開催의 準備工作에 專心할豫定이다

社說

社會分化의 最近形態

合理主義와 絶對主義

一

一時全歐洲를 風靡할듯하든 팟시즘의 激浪은 나치스獨逸과 伊太利에잇서서 政權을 確立함에끄치고 西歐의二大强國 英佛은依然히 自由主義의 傳統을 把持하고나가는中에잇다 歐洲諸國과 北米合衆國과 中南米諸國도 거의가 亦是 政治形態의 基礎는 多數決의 原理에立脚한 議會制度를運用하고잇다 이것은 現代文明人의 生活態度가 信仰的이고情的이기보담 社會事態의 進行과 맛모든 文化現象에 對하야 理性에 適合한法度을 取하려는合理主義的 傾向이濃厚케되기때문이다 大戰爭後一般社會情勢가不安迷하야 모든 方面에 緊急手段이必要한時에 特히 戰敗國인 獨逸、戰勝國이면서 戰敗國이나 다름업는 運命에 遭遇한 伊太利에잇서 팟시즘이 成功한것은 偶然한일이아니다。그러나 兩國의 팟시즘政權은 亦是 人民大多數의 選擇한 結果의 産物이 아니다 獨占化한 資本主義의 他의 手段에依한 支配形式이 이와 有機的으로 關聯된 强襲隊의 活動에 依하야 國民의頭上에 君臨한것이다 社會情勢의 急激한 動搖가 靜止됨에따러 파시즘은 人民大多數에게 興味를 喪失케한것은 佛國과 西班牙의 過般總選擧에 依하야 例示되엿다 今回西班牙의 팟시스트의 反亂은 復古的인 將軍들의 軍事的支配를 企圖하는 叛亂이다

二

나치스獨逸의 獨裁者들은 獨逸民族의 優越性을 狂信하는나머지 單一的인 汎獨主義를 人類文化에 寄與하는 最大의것으로 밋고잇다。그러나 交通手段이 急速化하고、文化의 交換이 四海一家化한오늘에잇서 單一한社會와 單一한文化의 獨存이 不可能한것은 常識이되여잇다 文明의進化란 同時에 社會의分化를 意味하는것이기때문이다 實로 現代는 急速度的인 社會分化의時代이니 첫재는 民族。單位로하야 生理的、心理的、文化的으로 서로類似한 一定한社會의成員을 構成하엿든 民族社會는生活狀態如何에 따러서는 橫的으로 分裂하야 結合되는 過程을밟고 잇기도하다、둘재는 分業의 發達에依하야 單純하엿든 綜合社會內部에 無數한 職業的身分的社會가 簇生한것을 들수잇다 셋재는 社會制度의 複雜化에따러 各社會成員間에 永續的關係가 分化되는것을 들수가잇다。이러한 點에서볼때에 어떠한 一民族이 옛光榮을謳歌하고、傳統的인權威에의 信仰的인 服從을 秩序의 根本으로하고、先驗的인 支配者의出現을待望하는 팟시즘의 倫理는 合理主義的인 現代人의 科學的態度와 複雜多岐化한 現代社會의 現實과 잘合致될 理가업다 特別한 例外를 除하고는 絶對主義的인 政治的形態도 漸次合理主義的으로 變改하여나가는것이 自然의 趨勢로보이는데 이에逆行하야 絶對的인 權威를 새로 確立하고 軍國的獨裁로서 經濟力을 强化하야 資本家的 生産樣式을 固持하려는것이 西班牙에 流血되는 것과가튼 反動革命이다 그러나 그어느것이 人民大多數의 幸福을 爲하야 善한것이 될것인가는 歷史만이알일이다。現在世界는 人의 叡智에 基하야 明日의 社會心理의 動向은 合理主義의 두 世界의 明日을 卜하는것이 될것이다。

〔上〕 마드리드街上의 右派의大亂鬪 左右兩派의 開爭은 尖銳하게 對立된 西班牙의 오늘의 騷亂을 齎來한것이다

明治天皇御例祭로 天皇陛下還幸

【東京電話同盟】 三十日은明治天皇의 御例祭임으로 天皇陛下께옵서는 皇靈殿에 御親拜키爲하시와純白의海軍御軍裝을입으시고 鈴木侍從長御陪乘侍從御劍璽를 捧하사 供奉하시고 松平宮相、宇佐美武官長以下를 隨從하시고 二十九日午後一時五十八分 略式自動車鹵簿로 葉山御用邸御出門 同二時五分 逗子驛御發御召列車로 同三時五分 東京驛御着 廣田大臣總代林法相을 爲始하야 文武顯官의 奉迎中에 坂口東鐵局長의 先導로 御下車 二重橋正門으로부터 宮城에還幸 三十日 午前十時 皇靈殿에서 御例祭의 御親祭를御終了하신後 午後一時五十五分 宮城御出門 同二時五分 東京驛御發 同三時五分 逗子驛御着 葉山御用邸에 行幸하실御豫定이시다

政權은可倒로되 民衆은絶對不動

西班牙大動亂의經緯

『歐洲는 兩端으로부터 赤化할것이다』 蘇聯과 西班牙가 그것이다 露革命家레온·트로츠키氏는 일즉 이러케豫言하엿다 今回의 西班牙動亂이 果然 이豫言을實現할는지『赤色西班牙』의 樹立希望與否를 不問하고 全世界는모다 그推移를 注目하고잇다 動은 반드시 反動을生한다

一九三一年의 共和革命以來 西班牙共和國은 左右兩翼의 軋轢鬪爭을 反覆하엿다 이것은 共和革命이 當然 成就하지안흐면 안될터이든 土地改革 僧侶의特權打破 少數民族의 解放等이依然 解決되지안코 자모라 아자나아를 爲始하야 政權을잡은政治家가 斷乎 此等 重要諸案을 解決하야 民衆의 要望에答할만한 熱意와 實力을 가지지안핫섯다 今年二月의 總選擧에 共和黨左派 社會黨 共産黨 아날코·산디칼리스트를 一括한 聯合人民戰線이 壓倒的勝利를 保한것은 結局은 西班牙民衆特히 農民이 果敢한 國政刷新을 要望하엿슴에 不外하다 아자니아大統領과 키로가 首相의『타이엄』은 이民衆의 要望에 바로 答하엿슴가 아니 여긔에도 또 世上의 政治家의 例에빠지지안코 左右兩翼의 사이에끼어 彌縫的 妥協政策으로 糊塗할바게 他道가업섯다

이러한 國內政情의 不安은 早晩 右翼의 쿠데타를 맛나거나 그러치안흐면 大衆의 組織的反抗에 遭遇할 運命을 孕胎하고잇섯다 팟쇼的軍部의 一部는 이情勢를 機敏히 察知하고 王黨派革新黨의 首領소테로氏의 暗殺事件을 契機로 左翼政府反對를 旗幟으로 叛亂軍을 起한것이다 프랑코將軍이 廢帝 알폰소十三世의 復辟을꾀한다고하지안코 共和國의危機를 防衛한다고 稱하고잇는것은 民衆心을 求하도록하는 제스추어에不過하다 이叛亂이 一次 成功한때에는 팟쇼獨裁政府가 어떠한 形式으로 復辟運動에 進出할것은 明若觀火이다

今回의 叛亂은 現政府反對를 標榜하고는잇스나 決코 單純한 쿠데타와가려 政府首腦의 更迭을 目標로는것이아니오 西班牙共和制를 다시 一層 徹底케하려는 人民戰線一派에 對한 公然한 攻擊이며 殲滅을 企圖한것이라고 말하지안흘수업다 西班牙民衆自身이 武器를들고 起한根據는 여긔잇다 아무튼 相對의 叛亂軍은 本職의軍人이므로 現政府側에서도 必死의防衛戰에 正規軍은 勿論 勞働團體에까지 總動員令을 내려 共和制擁護에 當하고잇스며 社會黨、共産黨도 十九日夜來라디오를 通하야 全國黨員에게 發檄하고 프랑코將軍과 힐·로브레스가 企圖한 反革命을 打倒하라고 激勵하엿다。

이리하야 議會를 中心으로한平和的人民戰線은 一朝에『武裝人民戰線』으로 轉化하엿다。現政府도 이政權을 維持하려는생각으로 지금까지『民團』의組織을 積極的으로 奬勵하고잇는 形勢인데事態가 다시 進展되어 政府의 弱點이 暴露되면 民衆이 政府를 逐出하고 스스로 叛軍排擊의 指導權을 掌握하게될것은 明白히 豫想되다 이때야말로 西班牙의 左右對立이 가장 危機的인 瞬間에 迫到될것이며 或은 트로츠키의 豫言이 現實化할때인지도 모르나 이리하야 西班牙共和國의『革命과 反革命』과는 益益 尖銳한 軌를 返復하야 할수업시 最後의 歷史的解決에 突進할것이다

官軍依然優勢 叛軍着着鎭靜

【마드리드發電】 革命勃發以來第十四回人째의 日曜(廿六日)의 마드리드市中의 情勢는 極히 平穩하야 何等 異狀도업시 經過하엿다。다만 各敎會의 集會는 萬一을 念慮하야 中止한結果 各映畵館은 滿員의 盛況을 모하야 動亂中에 잇다는 것을 忘却하는바가 잇서다。市街는往來도 만허 常時와 다를바업스나 石油販賣와 富者의 念慮로 自動車의 影子는 헤일만한 數밧게업다 政府는 宣傳放送을 繼續中인데 그것에 依하면 各地의 情勢는 如左하다 바다마中의 失戰은 政府軍의 大勝에 終하야 目下 北方으로 向하야 叛軍을 急追中이다 ▲산·세바스티안의 叛身은 完全히 掃蕩되엇다 ▲아비라州農民은 義勇軍을 組織하야 政府軍援助次 마드리드로 出發하엿다 ▲카듸스·사라곳사의 叛軍에 對해서는 二十六日 空爆을 加하야 多大한 損害를 與하엿다 ▲마라가州知事는 叛軍에 屬하는 세비라·카듸스·알헤시라스各市에의 送電線切斷을 發令하엿다 ▲안달시아地方의 形勢는 全혀 不明이다

全佛國의支配者 『二百家族』專制排擊

(下) 블룸內閣과金融政策

佛國은 大土地所有가업고 自作農이 만흐며 또 商工業도 小中企業이 적지아니한것이 그特徵인것은 世人이 잘알하는바이다 그러나 이에 依하야 決코 資本集中의 度가 나즌것을 意味하지안는다 佛國에서는 米國에서 보는것가튼 無理한 大規模生産組織은 하지안코 例컨대 炭坑으로도 生産四百萬噸以上은 經營上 困難을 生하는것이라보고 單一經營下에 集中치안는다 그러나 利益共同、重役交換、其他의 方法으로 各單位單位의 活動力을 集中하면서 各種의 資本結合을 行하야 高度의 資本集中이 그나마 重要産業部門에서 行하고잇다。重要한것만을 列擧하면 爲先『炭坑業』에서는 十七의 炭坑에서 九割을 生産하는데 이十七은 共通의社長、副社長을 推戴하는者 特히 取締役이 共通을 매저 共同社會同盟을 協同한다 『鐵鋼業』에서는 二百五十社를 集하나 三分之二의 産出은 완델、마린·에·오메쿠르等의 十二大工場에서 支配하고 石目과가튼 資本的 人的交換으로 連結되고잇다 또 완델等 約五의 資本群은 鑛山의 八、九十%를 支配하고 또 重要炭坑 兵器品 鐵道材料 船舶車輛業 鋼管 伯用機關 되-젤及瓦斯發動機 製鋼及農業機械 精密機械等을 支配하며 또 이資本群中의二가 鑛坑工業을 支配하고 一이 鐵山의 大部分을 所有하엿다 이리하야 石炭、鐵鋼業에 亘하야 大集中이잇다 『化學工業』에서는 加里生産은 國家三分之二 一會社三分之一로 分割獨占하고 보-키사이트는 三資本群 알미늄은 一資本群이 支配한다 電化學工業은 二大資本下에잇는데 其一(쿠-르만)은 二〇工場支配 三五工場經營參與 直接及 子會社를 通하야 染料와 알미늄 生産의 九割을 支配하고 알미늄의 境遇에는 一八工場 二四水力業 發電機構를 가진佛國最大의 電氣化學 精鍊工場을 支配한다 其二는 五工場所有 一五八의 他工場支配에 參與하다 以下 一·二乃至 三程度의 工場으로 生産을 支配하는 部門을 헤어보면 二十餘가잇다。火力發電은 相互交換하는 約八의資本群 水力은 二鐵道會社以下 數個의 資本群支配下에잇고 一九三三年 一經營으로 合同『海運』은 三大汽航의 支配下에잇스나 相互連絡이잇스며 『鐵道』는 五大會社다 『銀行』은 預金銀行으로 五大銀行이 存在하고 또 金은 炭坑業同樣、로든실드、마레、누-合的、資本家的、組織을 가지고잇다 프리-즈等의 諸財閥이 最初에 들어 있는것이 一般이다 (五)

이리하야 集中度가 資本交錯 이런 名目으로 노파지고잇다는것은 小數의 超大財閥의 支配는 안되것지만 小數가 並存하는 大財閥을 生하는것은 必然이다 그래서 그一部가 佛蘭銀行의 背後의 評議役會에는 直接間接 그代表를 送派하고잇는것가튼 形式으로 自家財閥直接의 代表를 佛蘭銀行에 보내지는안는다하며 財閥相互間의 競爭은 相當히 熾烈하나 이를消費者大衆의 眼目으로보면 右와如히 一體로보이는 것은 極히當然하다 只今、假令十二人(中一人은材料를缺하야除함)을 그關係産業으로 列擧해보면如左히 그中미라보-로든실드두누르리-즈、마레、오랑게의五人은 各自、著名한 同族銀行을가지고잇는것은 前記와가다

	銀行	保險	運輸	金屬	電氣	鑛業	化學	纖維
데·왼델	四	─	一	─	─	一	六	─
푸-랑크	─	─	─	─	─	─	一	─
다브레	一	一	─	─	─	─	─	─
미라보	五	一	四	─	一	五	─	二
두누르리-즈	三	一	一	一	一	一	─	─
마레-	一〇	四	五	一	一	二	─	三
오랑게	五	三	二	一	─	一	─	一
로든실드	一	二	四	─	─	一	─	─
드와별	一	二	一	四	一	三	─	─
두보게	一	三	五	一	─	─	二	─

注意할것은 銀行、保險、運輸에는 거의 빠지지안코 모다 各部內의 代表的企業만이것이다 그래서 이를 綜合하면 資本集中이기는하나 佛國에서는 金融資本의 共同支配가 相當한 程度로 發達되엿다고한다

이에 本國의『二百家族』專制는 人民戰線이 廢止되고 佛國銀行의 株式制가 廢止되는바와가려 成立된 專制는업서지는지도모른다 (블룸內閣案은 新理事會에는 商工業大小의 利益代表를 參加시킨다하므로)반듯이 以上의 大資本이 一掃될는지 알수업다 그러나 以上으로 明白한바와가티 今日까지 本主義國家의 當然으로 大資本은 本組織에까지 되어잇는 그勢力을 排除하기 어려운 佛國銀行 (完)

米增艦計畫을目標로 新國防計畫을樹立

海軍當局의具體案內容

【東京電話同盟】 海軍의 新國防計畫案은 느저도 八月十日頃까지에 明年度豫算과함께 大藏省에 提出하려고 目下經理局에서 計數整理를 急行中이다 그內容은 嚴秘에 附하고잇다 그런데 今回의 軍備計畫案은 所謂第一次 第二次補充計畫이 條約에依하야 生한 兵力量의 缺陷補充을 眼目으로 條約束縛下에 計畫되엇든것과 달러 主力艦의 代艦建造를 爲始하야 全艦種에亘하야全혀 自由로 日本國情國民性에適應한 軍備가 되게되려고立案된것으로 참으로 特異性을가지는同時에 米國海軍의 明年度以降의 增艦計畫을 目標로大略이에 括抗할수잇는 兵力量을 保有하려는 內容인것은 從來 海軍當局이 軍縮會議其他에서 英米패리티를 强調해온것으로 容易히首肯할수잇다 그런데 米國은 現在建造中인것 艦齡內艦船만으로도 約二百六十一隻、二十二萬噸、未起工分十六隻、百二十二萬五千噸에 達하는外에 明年度부터는 每年主力艦二隻의 代艦建造와 驅逐艦潛水艦 六十四隻 十七萬八千噸으로 一九四〇年 이것이 竣工되는때에는 母艦、水上機母艦、航空母艦其他各種特務艦五十四隻 二十二萬一千噸으로 十年計畫으로實施하려는中이다 英國은 現在建艦中인것三十二隻十三萬噸이오 未起工分十五隻二萬七千噸의 計畫을 實施中인데 이것이全部 竣工되면艦齡內艦船만으로도 約百九十二隻百十四萬噸이되고 또 主力艦二隻 巡洋艦五隻 小型母艦一隻驅逐艦九隻 潛水艦四隻 수루-프艦六隻 砲艦一隻 小型艇十二隻式의 五年計畫을實施中이다 이에 對하야 日本海軍은 第一次第二次計畫艦船中 二十五隻七萬二千噸을 目下 建造中이오 未起工分은 八隻二萬噸으로 이를全部合하여도 艦齡內艦船은 約百八隻七十八萬噸으로 英米에比하야 六割四分强의 劣勢가 될것은 明白하므로 約五年後의英米海軍에 對抗하야 西太平洋의 制海權을 掌握하고 國防安全을 期하려는 日本海軍의 新國防充實案의 內容은 經濟軍備를 施하더라도 主力艦以下 各艦種 航空隊等에 亘하야 相當한 多額의 經費를 要할것은 明白하다

北中中央化工作은 日本에重大影響

人事行政專擅、侮日傾向濃化!

北中事態를漸次重視

【北平二十九日發同盟】 北中에잇서서의 中國側政界의 重大人事任免은 昨年六月의 梅津何應欽協定에 依하야 日本側의 諒解가 必要하게되엇고 特히 冀察政務委員會成立以來 冀察兩省에 對하야 南京으로부터 獨立하려는 方針을 取하고잇섯스나 最近의 實情은 거이 北中重要人事全部를 들어 南京의 直接任免에 依하야 行하게되는터로 形勢는 全혀 逆轉하게되엿다 이傾向은 王克敏氏의 北上以來 俄然 積極的으로되야 南京의 北中中央化工作은 巧妙히 利用되야 北中文治派에 多大의 不安과 動搖를 與하고잇다 右는 南京派와 直系와 傍系의 對立 乃至 二十九軍의 對立을 激化하고 宋哲元氏에게 그統制力의 弱化를 招來할 虞가 업는것 一、南京派의 勢力擴張와한가지 日本側絶의 傾向이濃厚하여진것을 말하는것이어니와 何如튼日本의北中工作에 重大影響이잇스므로 事態는 重視되고잇다

콤인테른指令으로 和蘭서秘密會議

左右兩翼에二分된歐洲新情勢下에 對歐積極工作을審議

【哈爾濱發】 獨逸을 中心으로芬蘭 墺太利 伊太利를 連結한軍事的連携와 蘇聯을 中心으로佛國 체코 羅馬尼亞를 連結하는軍事的提携에 歐洲는 바야흐로死의 十字架에 달렷는데 最近當地某方面에의 情報에 依하면蘇聯은 今秋를 期하야 全歐洲에 對하야 積極的으로 赤化의 손을 集中하려고 企圖中인것이判明되엿다 卽 去月三十日부터 去三日까지 第三인터나쇼날의 指令에依하야 和蘭一小都市부레-드에서 全歐洲를 爲始하야 米國 印度 阿弗利加等의 各國共産黨代表約六十名의 秘密會議를 開催하고 歐洲赤化의 具體案을 審議한모양이다 그런데 第三인터나쇼날의 指令第一項은 부르조아 民主主義諸國政府機關의 擾亂으로 이를爲해서는 所與의 國家機關 軍隊에서의 가장反共産主義的인 巨物을 모든手段으로써 失墜케할것 第二項은 合法으로 勞働者各機關을 强化하야 그中에서 强固한 勞働者突擊隊를 結成化할것 第三項은 各國의 人民戰線派의 指導를 社會民主主義者로부터 奪取하야 共産黨 又는 勞働者突擊隊가 獲得할것 第四項은 全般的罷業에 依하야 資本主義諸國의 經濟機構를 破壞할것 그래서 부레-드會議는 右指令에基하야 今年九月부터 十月初에亘하야 一齊히 歐洲總攻擊을 開始할려이다 그런데 부레-드市는 不絶히 蘇聯及 各國共産黨首腦部가 集中하는 歐洲唯一의 都市로 늘二十名以上의 危險한 共産黨員이 潛入하여잇다고한다

에디오피아各地에 土民軍이蜂起!

雨期到來로交通杜絶

【아디스아베바二十八日發同盟】 雨期에 드러슨 에디오피아各地에 土民軍이 到處에 蜂起하야 交通杜絶과함께 伊太利軍을 괴롭게하고잇는데 二十八日데세、아디스아베바間 自動車道路에서 土民軍은 伊太利將備兵을 襲擊하야 土民軍은 死傷者約一千을 남기고 敗退하엿다 土民軍首領은 伊에紛爭當時 北部戰線에서 勇名을날리든 캇사將軍의 아들인 아데라、캇사氏이다

英國豫備兵團 新組織內容發表

新兵團總員一萬七千名

【倫敦二十八日發同盟】 英國政府는 國防充實方針에 基하야 新規로 步兵豫備兵團을 組織하기로 決定하고 二十八日新兵團의內容을 發表하엿다 新兵團은總員一萬七千名으로 하고 第一年은二十六週間入營訓練을 施하고 次年度以降五個年間은 每年二週間敎練을바들豫定이다

九日朝入港의 淺間丸으로歸任하엿다

英蘇借款成立說

【倫敦二十九日發同盟】 當地消息通의 傳하는바에依하면英國政府와蘇聯邦政府間에 二十八日 如左한 條件으로 借款이 成立되엇다고한다

總額 一千萬磅

期限十個年

利子五分半

曹汝霖氏 辭表를提出

【北平二十九日發同盟】 曹汝霖氏는 冀察政務委員會委員의 辭意를 表明하던바 二十八日正式으로 宋哲元氏에게 辭表를提出하엿다 委員長은 곳此를 中央政府에 移牒하엿다

松岡總裁歸任

【大連二十九日發同盟】 過般來渡東中이던 松岡滿鐵總裁는 二十

夕刊後市況 廿九日

◆大阪 短期 氣配◆

大新 六八四〇(不變)

鐘新 一五八一〇〇(不變)

日產 七九二〇(不變)

東新 一二三七〇(四〇高)

◆橫濱 生系 後場◆

當限 七四一〇〇 先限 七四二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 先限 五九八

社員採用

一、美術學校出身、工藝學校出身 又는商業美術、圖案等에 經驗이잇는者

一、年齡三十歲以下

右希望者는 七月三十一日까지 本社庶務部長에게 履歷書를郵送하시압 (面談은謝絶)

朝鮮日報社

旱魃끄테長霖으로 黃海道에水害憂慮

一週日동안의雨量이平均二百미리 農作物에影響多大

【海州支局電話】속보=련일 쏘다지는 비로 말미암아 해주(海州)를 기점으로한 황해선(黃海線)중요지선로와 각자동차선로의 교통이 일시는 두절되엿다 함은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다시 이십구일 오전 열시까지황해도 농무과(農務課)에 보고해온 도내 각지의 우량은 해주최고위로 다음과 갓다 이십년동안 통계를보면 일년간평균우량은 일천미리에 불과하엿는데 이번 일주일동안의 우량만으로도 평균 삼백미리로 그삼분지일에 해당하다한다 이것은 근래에 보기드문괴괴한 현상이므로 농무과에서도 농작물의영향을우려하는중이다그러고 오래동안가물로 말미아마 근심에 싸혀잇든 농촌에서는이제는 지리한장마에 자못불안을 느끼고잇는 현상이라한다

各地雨量=(今日午前十時現在) ▲海州 二二三、一미리 ▲新溪 八八미리 ▲長淵 三七미리 ▲信川四四미리 ▲瑞興四九、一미리 ▲谷山 五八、一미리

九個所水防團에 出動準備를命令

萬一의境遇를念慮코

【海州支局電話】비는 이십구일 오후까지도 작구퍼붓고 잇섯는데 수해가 념려되므로 황해도 경찰부에서는 이십구일 오후네시에 재녕(載寧)신천(信川)남천(南川)금천(金川)등 도내아홉곳 수방단(水防團)에 대하야 만일의경우에는 즉시 출동할수잇도록준비하고잇스라는 지령을내려서경게하고잇다

身元모를屍體

【海州支局電話】이십팔일오후세시에 황해도 수안군(遂安郡)수안면계엽리(桂葉里)부근냇가에홍수에 떠나려온 물에빠저죽은사람의 시체한개가 발견되엿는데 수안경찰서에서는 그신분을 조사하는중이라한다

京元、黃海兩線復舊 自動車路는不通

雨中이어서復舊困難

물에잠겨서 일시불통중이든경원선(京元線)복게(福溪)검불랑(劍拂浪)사이의 철도는 이십구일 오후두시반에 이르러 평소대로 회복되여 개통되엿고 조선철도 황해선(黃海線)가운데서 서종(西鍾)상해(上海)사이는 여전히 불통이며 그밧게 토성(土城)해주(海州)사이는 아모탈업시 긔차가 통행하고잇다 그러고 수교(水橋)에서 몽금포(夢金浦)사이의 자동차선로와 기타각지의 자동차길은모다 마켯다 비가작구쏘다지고 잇스므로 언제나 복구될는지 예측할수업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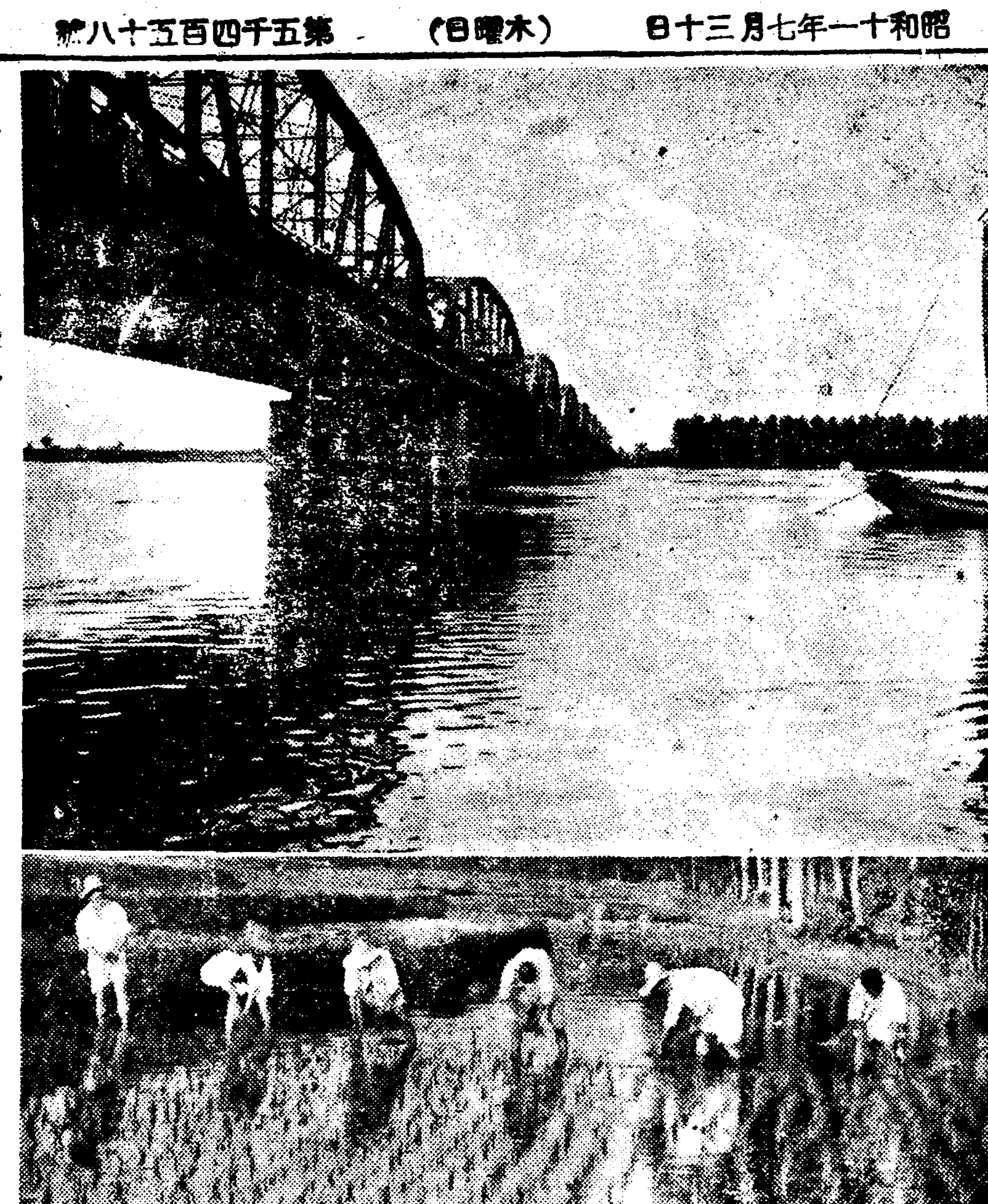
人妻를誘拐

시내도렴정(都染町)륙십오번지 김성재(金成載)(三一)라는 사람이 지난 십칠일 시내 서린정(瑞麟町)륙십이번지 김순덕(金順德)(二九)의 안해 최간란(崔干蘭)(二一)에게세집을 어더준다고 데리고 나간 다음 그대로 남녀가 자최를감추고말어서 그동안 남편되는사람이 사방으로 안해를 찾고잇던중 이십구일오후 두시에전긔 김성재를 발견하고 소관종로서로 데려왓는데 경찰에서는 유괴혐의로 취조중이다

開城慈善事業擴充

【開城】개성부 자선사업게에서는 오는 삼십일오후한시 부청회의실에서 정총대타합회(町總代打合會)를 좌긔순서와가터 개최하야 금후의 충실한사회시설을 도모하기에힘쓰리라한다

一、町會收支豫算經理에關한件
二、町會收支豫算並決算樣式件
三、市街道路淸潔保持에關한件
四、道路無斷使用에關한件
五、衛生思想普及宣傳에關한件
六、塵芥及汚穢物搬處에關한件
七、色服着用奬勵에關한件
八、儀禮準則勵行에關한件
九、心田開發에關한件
十、方面事務에關한件
十一、副業調査에關한件



◇……旱魃解消(上)大同江의增水(四米突四十)(下)中伏後天水畓에移秧(廣州大旺平野에서)

高地帶의開發案과 萬戶移民收容計畫

滿洲로가는 移民을 北朝鮮에끌고저 咸南道當局에서考慮中

【咸興】함남도 당국에서는 수년동안의 현안이든 고지대개발안(高地帶開發案)에 대하야 여러가지로 계획을 세우고잇는일방에 현하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문제로 되여잇는 『이민(移民)』계획을 세워 목하 총독부와 그계획의 실시에대하야 타협을하고 잇는중이다 이주목할만한 대게획의 내용을 들은바에 의하야 소개하면 현재 함남도내 고지대(高地帶)의 농경면적은 이십삼만삼천여정보의팡대한면적인데 그중에서농경부적면적인 이만삼천여정보를제하고도 오히려이십일만정보라는 면적을가지고잇다 이팡대한 면적을 철저히개량하야 일호의 경지면적을 삼정삼반보로하야도 륙만사천호의농가를 수용할수잇슬터인데 현재고지대에잇는 농경자가 오만삼천호가 됨으로 아직도 일만여호의 이민을 할수잇다는것으로서 현재남조선지방으로부터 해마다 만주방면에 이민하고잇는 것을 북조선에끄으러오자는대게획이다

運動競技

올림픽委員會 約半委員東京投票?

【伯林廿八日發同盟】次期第十二回올림픽大會 開催地를 決定할 올림픽委員會 總會는 二十九日은 開會式으로마치고 第二日인 三十日에는 『호텔·아드론』에서열고開催地問題를 投票決定할豫定인데 只今까지 伯林에 出席한 國際올림픽委員은 全部五十二名인바 缺席委員은十四名이다 이十四名中의 大票는 東京에投票할것이 大體로 確實하다고보아 伯林에 出席한 五十二名의 半數를 獲得하면 東京招致는 問題업다고 推測되는바 前記委員會에 出席者 五十二名中에서 廿七日午後까지의 狀態로서 東京에 投票할 可能性이잇는 委員氏名과 投票數는다음과가트다

▲白耳義一 라트르 ▲濠洲一 레일라 ▲墺太利 쉬밋트 ▲부라질一 잔토스 ▲中國一 王正廷 ▲췌코一 알로프스키 ▲佛國一 본이구낫크 ▲獨逸三 호렌드릿히、레와르드、후오헬드 ▲印度一 손지 ▲伊太利三 본네、뽀나코、사레뷔 ▲日本二 嘉納、副島 ▲芬蘭一 베나비데스 ▲愛蘭一 킨 ▲丁抹一 아그넬 ▲米國二 가렌드、뿌라데ㅣ지

◇…寫眞은 次回올림픽開催地를 決定하는 國際올림픽委員會가 열린伯林호텔·아드론의 外觀

東京開催決定되면 伯林서中繼放送

【東京電話同盟】第十二回올림픽大會開催地를決定할 올림픽委員會는廿九日부터 開幕되여 三十一日까지에 마치게 되엿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萬若次期올림픽大會開催地가東京으로決定될때에는 日本올림픽招致代表部는 本國으로 이喜消息을 速傳할터이다 日本放送協會에서는 日本開催가決定될때에는 三十一日午前六時半부터 同七時까지 萬若그때까지決定을 보지못할境遇에는 三十一日午後十一時부터 同十二時사이에 伯林으로부터 中繼放送을行하기로되엿다 그리고 三十日밤에는 特히AK放送國際放送係員이 宿直하고잇서 伯林에서의吉報를 待機하기로되엿다

冬季올림픽大會 加奈陀서招致運動

【반쿠ㅣ버ㅣ廿八日發同盟】第十二回올림픽開催地問題는 日本、英國、芬蘭三國間에 激烈한 爭奪戰을演하야 卅日最後의 決定을 보게되는바 只今까지 日本支持를 表明하고잇든 加奈陀가突然히 廿八日第十二回大會冬季競技를 加奈陀에招致할目的을 表明하고 二十九日 國際올림픽總會에 提出하야 卅日의 決定을기다리게되엿다 加奈陀가 이와가티突然冬季競技獲得運動을 惹起한데잇서 果然그原因이어데잇는지는 不明하나 目下日本과 激烈한競爭을繼續하고잇는 英國이 假令次期大會를 獲得하드라도 冬季競技開催가 不可能한것을 생각하면 冬季大會開催를 加奈陀에게 讓步하고 夏季大會를 英國에서開催하고저하는 策戰으로像想된다

農村에는喜雨이나 都市에는悲雨!

장마철마지한仁川품파리꾼 典當거리업서缺食

【仁川】바라고 기다리든 비! 쏘다지는 여름비에 살쩌가는농촌은 질거운노래가 넘치나 그날그날을 품파리로 연명하여나가는 도시로동자에게는 한업시 마운비이며 생명을 위협하는악마와가티 보인다 인천서북부(西北部)의 수천로동자의 요지음 생활상태를 보면 장마의 첫번 멧칠간은 뎐당(典當)질로 연명하게되야 웬만한전당포는 三四割이상의 입질(入質)수가 증가되드니 요지음은 그나마도 잡힐것이 업서서 뚝 끈어지고 하로한끼도못먹고 주리는 사람이 태반이라하며 일흥조은 『한울다리』격으로 빈민구제의간판 부친단체는 만으나 그들의 처참한 생활을 도라보지아니 하야장차 그들의 생명이 어찌될는지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 하며 극도의 빈곤으로 악의악식을 하야 전염병환자가 매일이삼건식발생한다

貨物車에轢傷

이십구일 오후네시경에 시내서대문정(西大門町)이정목 륙십이번지 압길에서 시내 청량정(淸凉町)칠십삼번지의 일호 장흥달(張興達)(三七)이가 운전하고가던 경(京)오전칠십일호 화물자동차에 시내 동막(東幕)사는 김씨(金氏)(三一)라는 녀자가 치여서 부근 동서(東西)의원에 입원하엿는데 전치일주일의 부상이라고한다

平壤、鎭南浦에도 이번비로雨量은洽足

大同江은四米突四十의增水

【平壤】련열의 자우는 한발의 영향을 가장만히 밧든평남일대에 끌고루 퍼부어 이십팔일오전열시까지에 평양부근은 백팔『미리』곳평양 일석구두팔종의호우가나렷고 물긔근이 가장심하든 진남포에서도 이십칠일오전열시부터 이십팔일오전열시까지에 팔십칠『미리』의 강우가쏘다저 제일수원지는 이만륙백돈의 증수가되엿고 제이수원지는 만수(滿水)되며 제방을 넘을우려가잇서 급수의시간제를 폐지하고 대량의 급수를하게되여 함성을 울리엇다

이양일간은 그리고밧、울로수업든 각농촌 전반우울이 완전히 해소되여 까딱하면 수한(水旱)을당하게도될터이나 이십팔일오후부터는 비가 개이기시작하여 그러한 우울도 아직발견할수업서 갈수록호조(好調)를보혀주고잇다

대동강도 삼메돌사십(三米四○)의증수이나 피해는업는 상류지역과의 수상운수사업이금후활발하게되엿슬뿐이다

이십팔일 나린강우량은 다음과가타서 요컨대 호조햇다고결론을 지을수잇다

▲中和百三十五미리 ▲江東百五미리 ▲順川九十五미리 ▲德川九十四미리 ▲龍岡九十一미리 ▲永柔六十五미리 ▲价川五十三미리 그러나 수리조합 저수지에는아직수량이 머럿다

中伏지낸이때 天水畓에移秧

때느저바뿐廣州大旺平野

【江南】삼십년래의 희유한 한발도 지난이십사일부터 나리기 시작한 호우(豪雨)로 완전이해소(解消)되는 동시에 전답에는 그곳곳이 물동냥을 이루웟다 그러나때는 이미느저 아즉도백답(白畓)으로 나머잇는 천수답(天水畓)들에 한하야는 시긔관계로 별로신통한 도리가 업다는데광주군(廣州郡)대왕평야(大旺平野)의결부인 오야(梧野)심곡(深谷)고등(高登)둔전(屯田)등고원지대(高原地帶)에는 요사이 이양(移秧)이 한창이라는바 그들으대개가 빈곤한소작인들로서 수확(收穫)을 바라는것보다도 압흐로닥처올 지주들의 철모르는소작료고율징수(小作料高率徵收)와 소작권이동(小作權移動)을 염려하고 그와가티 수확(收穫)이전연업슬것을 알면서도 연일모내기(移秧)에 분주한것이라고한다

中等野球豫選

11…6 光成惜敗 對仁川商業戰에

大每主催의 第二十二回 甲子園中等校 野球大會 朝鮮最終豫選第一日의 西朝鮮代表 平壤光成高普對 中部代表 仁川商業第一回戰은 二十九日 午後三時二分부터 京城球場에서 橋(球)佐田 石井(壘)三氏審判아래 仁川商業先攻으로 開始된바 光成高普軍 戰運不利하야 十一對六으로 惜敗하엿다 閉戰五時四十八分

【光成】 遊尹賀鉉 一崔在鎬 左金龍鎬 投金顯鎭 二李象鎭 中高宗玉 三金三訓 右桂련 捕金承模

打數 安打 犧打 三振 四球 盜壘 失策 捕逸 殘壘
100589609 34
141 3 5124 21039

【仁商】 遊下 二門 三田 投村 一口 捕山本 中良 左張 右橋本

떼杯爭奪戰에 英國四年連勝

【윔블돈二十八日發同盟】떼杯英國對濠洲最終日은 二十八日 윔블돈에서 [illegible] 英國이四年連勝하엿다

伯林서氷上大會開催

【伯林廿五日同盟特派員發】獨逸올림픽委員會는 來夏의大會期間中에冬季카르미쉬·바르텐키르헨에서 열리엇든 冬季올림픽大會의 氷上競技를再現시키고저 最大의國際選手를招待하야 一方豪華스러운『로그람』를 作成하야 男子피규어優勝者카ㅣ르·쉬ㅣ파ㅣ(墺太利)페아ㅣ스케이팅優勝者『빼이엘』、헤르베르(獨逸)아이스하키選手 英國팀을비롯하야 『엘르라ㅣ지』『빠진(佛蘭西)·쉬트레ㅣ프』等 獨墺英의 一流男女選手를 招聘하야 八月八、九兩日間과同十五、六兩日間의 四日間『스포ㅣ츠·빠라스트·스케ㅣ트링』에서 妙技를 公開하기로되엿다

聖火릴레이 匈、墺兩國을通過

【維也納廿九日發同盟】伯林올림픽大會目標로 繼走中의올림픽聖火는 伯林到着豫定日을 四日압두고 벌서 全코ㅣ스의半分以上을走破하야 廿九日午前二時半에 匈牙利와墺太利國境의킷트세ㅣ에到着하엿다 이곳에서는墺太利의 올림픽委員會會長『쉬밋트』博士가 出迎하야 손수匈牙利走者로부터 聖火를바더 곳墺太利의榮譽로운 第一走者로하야곰 出發케하엿다 第二走者는 墺太利體育協會副會長『빠른펠』氏가 繼走하야 北으로달리고잇는데 墺太利에서는 走者가 通過하는道路에다 큰『아ㅣ치』를 세워노코 聖火의到着을 기다리고잇다

카닝감不出場!

【伯林廿七日發同盟】米國陸上軍中距離의『카닝감』選手는 脚部負傷으로因하야 短期間에 回復은바랄수업시되여 米國中距離의 重鎭의 한사람을 일어버리게된 米國陸上軍은 只今은 意氣沮喪의狀態에 빠저잇다

同德庭球二組伊勢에

來八月四日부터 三重縣宇治山田市에서 열리는 伊勢神宮奉納庭球大會에 朝鮮代表로 出張할 同德女高普의 張瓊燦 吳鳳雲 姜鍾宜 崔姬貞諸孃은 豫定보다二日을다어서 三十日午後二時京城驛發臨時列車로 同校教諭鄭申氏引率下에 遠征하기로되엿다한다

世界重量拳鬪爭覇

【紐育廿七日發同盟】待望의 世界重量拳鬪爭覇『맥스·슈메링』對『젬스·푸라독』의 對戰은 今秋『매디손·스퀘아·가ㅣ덴』에서 擧行하기로 決定하고 其旨를『푸로모ㅣ타ㅣ』인『마이크·자콥스』로부터 發表한바 試合期日은大槪九月廿四日로 同三十日사이의조흔날을擇하기로되엿다

工場地帶永登浦에 消防機關을新設

위선八名의消防手를常置

【永登浦】경성부역확장에반하야 제반경세가 날로복잡화 하여나가는신흥공업도시 영등포에는전화구역통합문제 전차연장문제 빼스임금저하문제 배수문제 교육기관확충문제 위생긔관완비문제등 도시발전상여러가지 초미의급을 요하는 중요한안이 잇는데 특히화재에대한 불안을일소하는것은 그중에도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사항으로서 부편입실시이래 경찰당국에서는여러가지 재정난도불고하고영등포에소방긔관을완비코저 십삼년연구를거듭한결과 금번에 그실시안이 성립되여근근경성부영등포출장소엽헤다가 굉장한 소방출장소의건물을건설하기로 되엿는대 그때까지 일시라도 방임하여둘수가 업다고하야 위선경성소방서(京城消防署)에서는 영등포경찰서(永登浦署)와 협의하여 가지고지난이십칠일부터 경찰서엽헤잇는 영등포토목관구(永登浦土木管區)(電話二二一番)내에 림시힐소(詰所)를두고 소방자동차일대를 비치한후 매일팔명씩의 소방수를 갑을량조에 나누어 격일교대로 근무케하엿다는데 이로서 각회사공장들은 물론이고 일반신부민의 불안이 일소되엿스며 압흐로그활동에 큰 긔대를 한다고한다

自費로架橋

【開城】개풍군 비야리 허풍동(開豐郡排也里許豐洞)아프로부터 고남리(古南里)비전문(批殿門)동구를 흘르고잇는 허풍천은 동리 강릉동(康陵洞)아페가교가 업는 때문에 일반주민은 평소에 대단한불편을 늣겻슬뿐아니라 장마때면 왕왕이 교통이 두절되는형편에잇는바 이소문을들은유지 부내동본정(東本町)김진철(金鎭喆)씨는 자비륙백원을들여 지난이십팔일에 훌륭한다리 한개를 준공시켜준바 일반주민들은 씨의 남다른공로에 칭찬이 자자하다한다

平壤第二人道橋의 豫算이重大問題!

今後積極運動이必要

【平壤】평양에 제이인도교를가설하라는 요구는 관민을 총동원하여가지고 목하맹운동을 계속하고 잇거니와 총독부당국에서는 물론평양에 제이인도교가 필요함은 절실히늣기나 예산편출관계로 그러케 열이업고 냉담하다는 관측이 명확하게되여 어떠케되면 명년도예산에 계상이 못될것으로 추측도되여 금후가일층의 맹렬한 적극운동의 필요를 늣기게한다

玄海灘密航者 五十餘名檢擧

【釜山】지난이십팔일오전한시경 경남동래군남면민락리(東萊郡南面民樂里)해안에서 밀항자가 밀항을 긔도하고잇다는것을 부산수상경찰에서 탐지하고 형사대가 총동원하야 자동차로 현장에 급행하야서 해안 송림(松林)중에 모혀잇든밀항자 오십여명을검거하야다가동서에류치시켜노코방금 엄중이 취조중이라는데 그들은수일전에부산진(釜山鎭)손윤직(孫允植)(四〇)동우동식(禹東植)(四〇)등두명의 밀항 뿌로커에게 수수료를 칠원내지 십원식을 주엇는데 동일밤에 밀항시켜준다기에 그곳에 모혓다가그와가티 검거된것이라한다

◇◇今日의運動◇◇

▲籠球=全朝鮮男女中等學校選手權大會 第一日 ◇女子部…第一回戰 A 進明女高對 京城女高普(午前十一時)同準決勝戰 一高女對 釜山女高普(午後四時半)同A勝者對 龍谷高女(午後五時半)◇實業學校部…崇商對 道商(午後一時半)◇高普部…第一回戰 光成高普對 第二高普(午前十二時)同準決勝戰 A平壤高普對第一高普(午後二時半)同A勝者對 徽新學校(以上全部京城球場 雨天이면 淸凉町大學豫科코ㅣ트)

▲野球=甲子園中等野球 朝鮮最終豫選 第二日 準決勝…北朝鮮代表 咸興商業對 南朝鮮代表 大邱商業(午後一) 中部代表 仁川商業對 湖南代表 光州中學(午後四時) 京城球場

光成高普對 멕시코野球戰은 徽文球場서(午後四時)

運動界人事

▲平壤光成高普野球團 一行十名은同校教諭金基淵氏引率下에廿九日入京三角町漢陽旅館에投宿

◎어며케하면 좀더잘사나?

우리가 이세상에 생겨나서 인생고해(苦海)라고 고생만하고산다 장가마(寶蓋)안에도 서름이잇다고 행복스러운중에도 한편으로는 다소간불행이잇다 돈이업서 하고싶은일을못하며 돈은 만어도 병이잇는지 병이업서도 가정이불화하다든지 가족이 만흐면서도 번거러가면서 병들압는다든지 일평생 하는일에서 안업스나 제일고통스러운것은 몸에 병이잇는것이다 신외무물이라 몸에 병이잇고는 영웅열사도못견대여서 죽는것이오 아모리돈이만허도쓸대업고 지위(地位)가 놉다해도 다ㅣ소용이업다 그야말로 손톱미테가시만들어도 불편하고 거북한것이다 더구나몸에무서운큰병이잇다면 당장에죽을것갓다 감기만들어 머리만좀 아퍼도 견디지못한다

의학(醫學)상으로 보면 무슨병이든지 대소를물론하고 다죽는병이라한다 그런대우리는 그런줄은 모르고의학과의생(醫學과衛生)의지식이 업기때문에 항상 병을알고잘고치지못하고 죽는다 그러니우리가 좀더 잘살고행복스러운생활을 할나면제일병에 안걸녀야하겟고 만일병에걸녀도 그병이 점점중하아저서 죽게까지 이르지안케 곳제일신용잇고 신효한 약을구하여서써야하겟다 그러면 어느약이제일조흐냐 삼척동자라도 다ㅣ아는 서울신성당약이 무슨병에든지 제일 조타한다 이것은 입담년 사람이면 다ㅣ말하거니와 더욱 각언론기관 각신문잡지사가잘증명한다 날마나 나다십히하는광고를 보드라도 이것이확실히증명하는것이다 효미로만을믿음을 등한히하면 가래로도 못막게되니 이글을 보시면병에만은신성당약을 당으로부터! 신성당 칠대명약외에 무슨약이든지업는것이 업사오나 다소를물론하고 제일먼저 시험하야보시오 서대문정 제일큰 희번울직신성당약방으로 주문하십시오 진체구좌는 경성四九五○번입니다 주문하시는대로 당일로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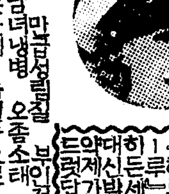
칠대명약

겡오ㅣ (체증·엠피) 완고용 삼원 중증용 이원 경증용 일원
구로벨 (냉병·임질·대하증) 완고악성용 구원 급성용 오원 만성용 삼원
푸로다ㅣ (매독엔) 완고용 칠원 중증용 오원 경증용 삼원
나오삐ㅣ (부족증·폐병·늑막염) 삼기용 이십원 이기용 십원 초기용 오원
가이자ㅣ (보음·보약·젊어지는약) 중증용 십원 경증용 오원
에치삐ㅣ (기침、해소、천식、담) 완고용 삼원 중증용 이원 경증용 일원
엥구루 (치질약) 중증용 이원 경증용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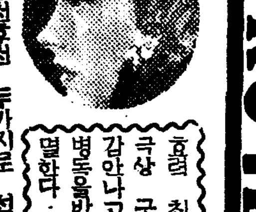
보음보약 젊어지는약 가이자ㅣ(KAIZER) 가제일

폐병 부족증 늑막염엔 나오뻬리(NAOPERI) 가제일

임질 대하증 냉병엔 큐로벨(KUROBER) 이제일



매독엔 푸로다(PROTER) 가제일



효력 최구 극상 감안나고 병독을박멸한다

매독은선천후천두가지로 세유전되는 천연으로 발생하는 병인데이조…

發賣元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前五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三三四番 (振替京城四九五○番)

겐고-루

림질근치약
부라온銀

부부협력하여 곳치자

약한방울로 단二分間에 효과가낫타나는 약이니 림상치료에는 물론이요 자택에서도 단시일안에 손쉽게근치되는약입니다

뜨거운 해빗이 내리쪼이는요새에는 몸이튼튼하신분이라도 병에걸리기쉬운때이니 더구나 림질 혹은부인병으로 고통을 밧으시는분에게는 더위로 몸은 더욱 쇠약되며 병세도일층 더 중환으로 되시기쉬운때입니다 흔이 사람의 인정으로 전염되야 발병된당시에는 고통과 번민에 못이겨 허둥지둥하시며 치료법도 이것저것을 골나 석거서 계속하시나 그 치료법과 치료약의 선택을 잘못하신줄은 모르시고 다만 림질의특증으로 중간에 좀 증세가 개이시면 「올치! 다아 낫고나」하시고 치료를 등한히 하시여서 매년 이때면 다시금 재발하야 고통을늣기시는 분이얼마나만습니까?

림질은 걸닌지 얼마안되야 만성증으로 병세가 변하나니 그럿케 심하든 고통도개이고 나은듯이보인다

흔이 이런때에 모든분은 그때까지 써오시든 내복약(당약, 가루약, 환약, 물약, 膠球)등으로다 낫은줄아시는것이 보통이나 사실에잇서서는 먹는약(內服藥)으로는 림질과 부인병은 절대로 낫지안는다는것이 세계각국의 전문대가의 림상보고(臨床報告)가중 명하고잇습니다 즉 림질이 만성(慢性)이되야 병세가일시적 개일때는 병균(病菌)은 더욱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무서운 해독을 일으키고 잇는때이니 그엇지 치료법과 치료약의 선택(選擇)을 등한히 할수잇소리요가!

남편의게 림질기운이잇스면 반드시 부인의게 전염되나니 부부협력하시사 화섭상 실제상 제일조흔약으로 하로밧비 근치식혀버립시다……

어런 비참한 일이 또어데 잇겟습니까? 자기만 걸녀서 신세를 딱하게하고 고통을 늣기는줄만 알엇든 것이 아무 죄업는 부녀자께까지 전염을식혀서 무서운 부인병을 알케만드니 그엇지 자기집안을 위하야 아니 자거민족의 발전을위하야 속히 곳처버리시고 건강에 빗나는 일군이되서야할것이아니냐자!

먹는약으로는 絶對로 根治가못되고곳再發된다

「림질은 어떠케하면 속히 곳칠수잇슬가하는 문제는 고통을밧으시는환자뿐만 아니라 세계 전문의학자들께도 큰연구거리이엿스나 독일(獨逸)의세계적 성병대가「와레친의 「수타인」博士가 제래의 치료의 한계에 일대경종을울니게된 新學說―즉「림질치료에 제래에는 먹는약을 써왓스나 먹는약으로는 결코 림질은 근치가 못되고 오줌속(尿中)에 림균이 오히려늘어가나니 반듯이 환부의약을 직접넛는치료법으로서 우수한효력을가진은제(銀劑)라야만 근치할수잇다」라는 림상보고(臨床報告)이래 세계각국의 전문가들은 그學說에따라 림질근치약의 발명연구를 거듭하든중 동양서 제일큰 동경길원유곽안에잇는 경시청병원 길원병원장으로 게시든 좌등영선생이 제임 십수년동안에 실지경험과 신화학연구로 림질경선치료제「부라온銀겐고-루」라는 强力한局所銀劑를 발명하시사 세계의학계에 一大경탄으로 환영을밧게되엿습니다

즉 유파병원에서 수만의 림질환자를 매일진찰하시는동안에 신화학과 약리학연구로 가장 新學說과 림상치료에합당한약이 발명된것임으로 무슨약보다도 단시일안에 림질을 근치식혀서 환자제씨를 전신적 정세적 고통에서 속히 버서나게 만들어줍니다 떠구나 병원치료뿐만아니라 일반가정에서도 아무염려업시 간단히 사용하야 속히 근치되는약입니다

내복약은 엇재서 림질을 못곳치느냐하면―절대 치료법을 몰낫을 時代에는 허는수업서 써왓섯으나 먹는약이만큼 위장을 경유하야 약한기운으로 환부에 작용하며 다소간 듯는약을 석그면 그약의 성질을 받듯이 위장에 속병을 남겨주고 병세를 일시적안정식히든가 잡복케 만드는데 지나지안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림균은 뇨도조직심부(尿道組織深部)또는 자궁(子宮)속에 속깁이 뿌리백혀잇는데 약기운이 위장을통하야 그곳에병균을 얼마나 죽일수잇겟으며 또한 림균이 죽을만한 强한약을 석그면 위장과 오줌보가 녹아버려서 오줌이 아니나오게되니 다만 내복약은 어느정도의 알음을 다스르든가 또는 오줌을잘 나오게할뿐임으로 그와가티 오랜기한을 두고 장복을하여도 조곰도낫지를안코늘 재발하든것이엿습니다

그외의 治療法으로는 세척법(洗滌法)이잇스나 이것은 익숙한 전문의사의 림상치료 이외에는 위험하고 주사료법(注射療法)은 병발증에는 특효가 잇스나 뇨도림질에는 그렷타는 효과가 적으며 그외에 가루약을 에교를 입뎌서 석양가지갓이만틀 이따따한것을 뇨도속에넛는 **挿入劑**(삽입제)는 협집이생기고 진물은 뇨도점막에 억지로 넛는판 게로 그고통은 터밀할것도 업스며 떠구나 약가루가채 녹기도 전에 오즘에 씨서 내려지기쉬움으로 별다른 효험을 엇지 못하고 잇습니다 그외에 온천료법(溫泉療法) 전기료법(電氣療法)등이잇스나 아직까지에는 특수한 효험을 보지못하고 잇는모양입니다

직접 환부에 藥한방울을 집어너서 속속드리뿌리백힌림균을 집어내듯이 단시일에根治식히는 부라온銀의偉力

남의약을 억설로 중상하거나 욕하는바가 아니오나 藥만은 조흔 것으로곳치시는것이 속히 낫게됨으로 환자의합분이라도 조흔약으로 곳처서 속히 낫기를바라는 本劑가림질근치약은겐고-루뿐이다늠라고 고창하고추천하는바이오니 정당치못한 치료약으로 일생의 고길을 만들지 마시고 속히本劑로 치료하여주시사 根治하시고 그기쁨을 널니 선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독신남녀때는 물론이요 가정생활하시는분은 꼭부부협력하시여서 겐고-루로곳처주서기바라오며 특히 부인께서는 『와세돈球』를 병용하시면더욱속합니다

림질자택치료 정진서료

겐고-루에는藥價는가트나 병증세에 따라 ○號(初感染用)一號(급성용)二號(만성용)三號(부인용)의 구별이잇사오니 병세를조선문으로통지하시면송료부담으로 송약합니다

―겐고-루의藥價―

보급약(초감선용 급성용 만성용 부인용)……一圓九十錢
二五瓦入(約十七日量)……三圓八十錢
五〇瓦入(約卅五日量)……七圓
八〇瓦入(約五十七量)……十圓

―注意― 전염된동지七日이내에는 ○號(초감선용)를쓰시면 충분하나 좀이상하실때에는 一號(급성용)를쓰시면 그만이고 急性症인분(올는지 廿日頃까지)은○號를쓰시고一號를쓰시면 만성증으로되지안으며 慢性症인분(올는지 一個月이상)은처음에 一號를쓰시고 二號를계속하야 쓰시면 단시일안에오줌이맑아지며 아조근치가되여 버림니다

전동경길원유곽시원병원장
좌동영선생발명처방

帝大病院 赤十字病院에서 쓰는약으로 자택에서라도 간단히부인병이 근치된다

부인병(자궁병)은 가정생활하시는분은 물론이고 처녀시대에도 걸니는것이니 자기가 직작으로 알수잇는 증세를 말삼드리자면 ―두통, 현기, 상기증이심하거나―월경이고르지못하고 월경때면앞게되고―대하증(소위 냉증)이 흘으게되야 색이 돗고냄새가나든가―아래배나 허리 팔다리가수시고 압푸며―회색이못치못하고―오줌이 자자지며 누어도 남은것갓고 오줌눌때 쓰리고 알트거나―속부가 붓고 가렵고 압픈것입니다

그러나 흔히 백자는 모도 그런증세자 엇거니하시고 병세를 병욱 심하게만드는수가 만흡니 전문의사의 진찰을 바드시거나 또는 자택에서라도 유명한부인병약의치료와 독가튼치료를 할수잇는 부인병신약와세돈球로 곳처서면 곳 낫게됩니다●

흔이 지금까지에는 부인병치료에 향약 환약 가루약가튼 내복약(內服藥)을 복약하셋스나 부인병은 결코 대복약으로는낫지안으며 다만 물을 돗돗하게하든가 변통이 좃케될뿐이고 조곰도 자궁속에 박혀잇는 병균에게는 아무 작용을못함으로 내복약을 아모리 장구한시일을두고먹어도 조곰도낫지안흐며 떠구나 醫學上合理된治療法인 질구(膣球―넛는약)일지라도 재래의것은 조흔것이적어서 효과를 엇지못하엿습니다●

즉 한개를가지고 며칠식쓰든가 또는 잘녹지를안코 녹어도 찌거기가남어서 나오든가 다만 대하증만 빨아드려서 병세를더욱 심하게하거나 냄새가나고 거뭇약물이 흘너나와 속곳을드럽피며 남까지 알게되야 환자에게 실증을 주든것이엿습니다

그에비하야 『와세돈球』는 권위잇는大病院에서 수만흔부인병환자를 구원하고잇는약으로 약효가 훌륭할뿐아니라 모양은 희고 향기러운냄새와함께 한두번사용에 병세가 어름녹듯이 낫게되는 약입니다 그리하야 여러가지 사정으로 병원에못가시는분이라도 집에서 남몰내 독가튼치료를 할수잇스며 약갑도 실비이니 부인병으로 고통바드시는분은 조곰도주저마시고곡와세돈球를시용하여보시사 명랑한 건강에넘치는 近代女性美를 차저주십시요。

부인병근치약 와세돈球 가약

十二球入……一圓
廿四球入……二圓
卅六球入……二圓十錢
病院用一四四球入……十二圓

어느가정에도 꼭 한권식필요한 **조선국문으로쓴가정위생보감** 醫學博士 河合晚策 先生 著 **女性의新生理學**을 통지하시는대로거저드립니다

東京市芝區通新町十三
日東製藥合名會社
振替東京三一九四三
京城☆新井藥房☆木村藥房
釜山大黑南海堂

와세돈球

最新婦人病藥

能力以上의 賦課를 委員獨斷으로 査定

十圓을 廿圓으로 引上하는 等

滿鐵公課金問題後聞

【安東】 안동현에 잇서 조선인아동의 유일한 교육기관인 소화(昭和) 대정(大正) 량보통학교에서 학교의 경영관리자 만철지방사무소(滿鐵地方事務所)로부터 공비(公費)체납한 사람의 자제 백사십팔명이나 한꺼번에 퇴학을 명령시켜 세상의 이목을 놀내게 하는 동시에 재만조선아동교육계에 커다란 충동을 주고 잇다함은 련일보도한바와 가튼데 금번 만철당국의 처사에 대하야 상세한 내용을 들으면 사건이 이에 이르게까지된 리유는 조선사람으로서 오직 한명뿐인 안동지방위원(安東地方委員) 김호찬(金浩贊)씨개인의 망동(妄動)이라는것이 백일하에 드러나 일반 학부형들은 물론 안동재주 조선인전체의 의분을 자아내고 잇다한다 즉 안동현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경제력이란 말할수업시 빈약하다는것을 만철당국도 잘 알고잇기때문에 조선인에 대하여서는 세금을 더 증수하려고 생각지도 안는것을 금번 지방위원회를 개최하고 납세사정(納稅査定)을 할때에 조선인의것은 조선인위원 김씨가 단독으로 마타서 사정을 하게되엿든것인데 수입을두고 사정한결과 김위원은 조선인이 일본내지인과 가튼 세금은 부담하지못하드라도 될수잇는대로 조곰식 더 내여서 교육비에 보조를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속담에 「자긔 배가 불르면 종의 밥은 생각지 안는다」는것과 흡사한 개인적 의견으로 십원납부하든것은 이십원을 넘어 납부할수잇다하고 지금까지 한푼도 납부할 능력이 업서 면제되어 오든것까지 전부 능력이 잇다고 사정을 한관계로 만철당국에서는 이에 의하야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엿든것이나 원체빈곤한 사람들과 싸우면서 호구의 길조차 막연한터이라 세금을 도저히 납부할수업기때문에 필연적으로 체납을 하기에 이른것이라하며 만철당국은 어데까지든지 세금을 징수하겟다는 비상수단으로서 그처럼 백사십팔명의 아동을 퇴학시킨것이라한다

섭섭한것입니다

昭和普校學父兄會 副會長 金承鉉氏 談

전하는말과 가티 김호찬씨와 교장이 그처럼 자긔들의 마음대로 소비하엿다면 이것은 학부형회를 무시한것이라고 할밧게 볼수업습니다 사실이 그러타고하면 도저히 그대로둘수업지요

滿鐵地方所長 談

이번 공비문제에 대하야 김호찬개인이 사정한것이기 때문에 일반은 그것을 그대로 납부할수업다하야 본사에까지 진정한다는 말까지 잇스나 이제와서 아무런 운동을 이르킨다하여도 도저히 할수업섯다 아모리 김호찬 일개인의 사정이라하더라도 당국에서는 위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터임으로 사정한 그대로 징수하지 절대변경은 할수업는것입니다

沸騰한 輿論에 밀려

學父兄會費로 代納

이處事조차 何等의 交涉업서

學父兄會서도 極憤慨

전항 사건이 발생하자 사회적으로 여론이 비등하여잇는것을 본 김위원은 자긔의 망동을 느끼엇슴인지 또는 책임을 늣기엇슴인지 만철당국에 대하야 세금을 납부치못하는 사람이잇다면 자긔가 전부 대납(代納)을 하고라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겟다고 호언장담을 하고나서 문제의 량보통학교교장과 우물주물하여가지고 (대정보통학교만은 부형회결의에의함) 학부형회비(學父兄會費)를 학부형회장과부회장의 승락도업시 그것을가지고 당국에체납된 전과 백사십팔명아동의 보호자공비를 납부하여버렷슴으로 퇴학처분을 당하엿든 아동들의 복교문제만은 해결되엿지만 김위원의 망동은 점점도를거듭하게되여 금명일간 학부형회를 개최하고 이에대한 선후대책을 강구할터이라한다

大正校學父兄會 副會長 崔忠元氏談

이번 문제에 대하야 대정보통학교에서는 무엇보다도 퇴학아동들을 복교 시키는것이 가장긴급하기때문에 학부형회의결의에 의하야 회비를 일시 립체하여가지고 사건을우

◇……제철맛난河童 臨津江下流所見(汶山浦支局)

釜山府內의 染病

累計二百廿二名

現在呻吟患者만이百十名

七月中은日平均三名

【釜山】 요사이 일긔가 고르지 못한관계로 각처에서 전염병(傳染病)이 창궐하고잇는데 부산부내에서도 날로전염병환자가 증가하야 금년정월부터 칠월이십팔일까지에 삼백이십삼명을 돌파하얏고 아직알코잇는 환자가 일백십명이며 사망자도 오십칠명이나된다는데 특히 칠월중에 발생한 환자가 구십팔명으로 매일평균삼명식 발생하고 잇는 현상이라한다 그리고 각전염병별로 보면다음과갓다

病名	發生累計	死亡累計	現在
腸窒扶斯	一四五	一二	五九
赤痢	八一	五八	一四
猩紅熱	四〇	一	一
지푸테리아	二六	一	一
性腦脊病	二六	一	一六
其他	五	〇	〇
累計	三二三	五七	一一〇

酒宴末參에 憤慨

아우집에 放火

【光州】 전남령암군 삼호면 룡앙리(龍仰里)사는 김재관(金在官)(三〇)은 약사변전에 어선의 송조원이 되야 출가한후 무소식이엿슴으로 그의 실형 김영택(金永澤)(四〇)은 아우의 가사를 사변간이나 돌보고잇든중 금번에 아우 김재관이가 사변만에 귀가하야 다소 버러가지고 온돈으로서 자긔부재중에 만흔폐를 지엿다고 친척을 모아주연(酒宴)을 열엇섯는바 때마침 형 김영택이가 출가하엿섯는데 그가 귀가하야 대분개하야 그아우가 부재중 고통은 자긔혼자하얏는대 주연에도 초대안하얏다고 그아우의 집에다 방화를 하얏다 이를 안소관 령암서(靈岩署)에서는 방화범으로 취조를 마치고 근일 송국하리라한다

第二築港實現

實測도벌서開始

【新昌】 다년간현안중에잇든 함남신창항(新昌港)제이축항(第二築港)문제는 최근에이르러 겨우 구체화하야 일대주민은 큰기대를가지고잇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영빈기수(永濱技手)외삼명의 실측대는 지난이십일일부터 사십여일간을두고 측량을계시할모양이라는데 그협정은 신창(新昌)

流言蜚語嫌疑로

託鉢僧의 被檢

【醴泉】 례천경찰서에서는 지난이십사일에 병자년을 빙자하고 인심을 소동시키면서 동양승(僧)에게 도라단이는 동양승(僧)에게 류언비어(流言蜚語)혐의로 구류처분을 하엿다고한다 그는 금강산모사찰에 승적을 둔 권영호(權永虎)(二〇)로 례천읍내 백전(栢田)동에서 전긔와가티 류언비어를 하고동양을빌다가 호구조사단니는 경관에게 검거된것이라한다

惠山邑會決議로

關係當局에陳情

【惠山鎭】 함남혜산진은 거유월에 국경수비대의 이화감소로인하야 대안장래지방에 비적의습래가 왕왕이잇슴으로 국경주민의 생활안정은 꿈에도 볼수업슴을 늣긴바 이십삼일오후한시부터 혜산읍회의원 급지방유지 수십명이 읍사무소에 회합하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자외사항을 결의하야군부 급경무당국에진정하얏다한다

◇陳情條項

一、國境守備隊現狀維持의件

一、警察官缺增員의件

一、地方法院支廳設置促進의件

一、防護事工事實行의件

腸窒扶斯猖獗

死亡三名

【義州】 의주읍내에 장질부사가 만연되여 사망자세명을 내이고 현재에도 리병자수명이잇서 의주서에서는 지난이십일부터칠천여읍민에게 일제히예방주사를실시하엿다한다

이상일에 국경경비(國境警備)가 실현간이라는바 동긔성회에서는 이십일 오후네시에회원을 긴급소집하야 동리신창관에서 긔성총회를 개최하고 토의한결과 축항비 일천이백원의긔부를 모집한바 예산에 초과되엿고 구체적 토의사항은 다음날에미루엇다한다

慶北의 水稻移植

九割九分完了

【大邱】 지난이십일 현재경북도내의 수도이앙성적은 구할구분팔리로 즉이앙면적 칠만칠천정보에 달하엿는데 근년회유의 팔호성적을 내엿다는데 제일불량한 봉화군이 구할구분이며 청주、의성、단양등군을 구분칠리이상에 이르렷스며 남어지 확계군은 단면적 전부에 식재하얏슴으로 금번의 벼사는 금후특수한 재해만업스면 풍작을예상하게되엿다한다

徐椿氏經濟講演

晉州에서도空前盛況

本報晉州支局主催로

【晉州】 본보진주지국주최의본사주필서춘(本社主筆徐椿)씨경제대강연회는 예정과가티 지난이십오일오후팔시반 신축한극장 진주삼포관(三浦館)에서 개최하엿는데 이날밤도 몃칠전부터나리는비가 계속하여 쏘다짐에도불구하고 청중은 정각전부터몰려들기시작하야 칠여명을수용하는넓은장내가 거의다차게되엿다 정각이되자 지국장하용식(河龍植)씨의 사회아래 "景氣의過去及將來"란 연제로 서춘선생의강연이 청중의 박수리에 시작되엿는데 씨의명석한경제관으로 평이하고도조리잇게 약두시간에 긍하야 열변을토하여 청중이 기피감명한바잇섯는데 동열한시십분경 공전의 성황리에 폐회하엿다

南朝鮮蹴球大會

安康分局後援

【安康】 본보안강분국후원의청년학생체육장려를 목적한 제이회남선축구대회(南鮮蹴球大會)는오는 팔월구일에 당지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게되얏는데 래빈에 의하야 금번에도 벌서부터 대성황을 예긔하며 대회규정은 다음과갓다고한다。

一、日時 八月九日午前九時(雨天順延)

一、場所 安康公設運動場

一、參加資格 青年及學生

一、參加人員 每團十一人(候補二人 監督者一人)

一、參加金 每團二圓(參加申請時에納付하고 返還하지는 不함)

一、申請期限 八月八日午前十二時까지

一、申請場所 朝鮮日報社安康分局

一、抽籤 八月八日午後九時

一、賞品 優勝旗 其他副賞

一、本規程에未備한點은運營慣例에依함

本報公州支局主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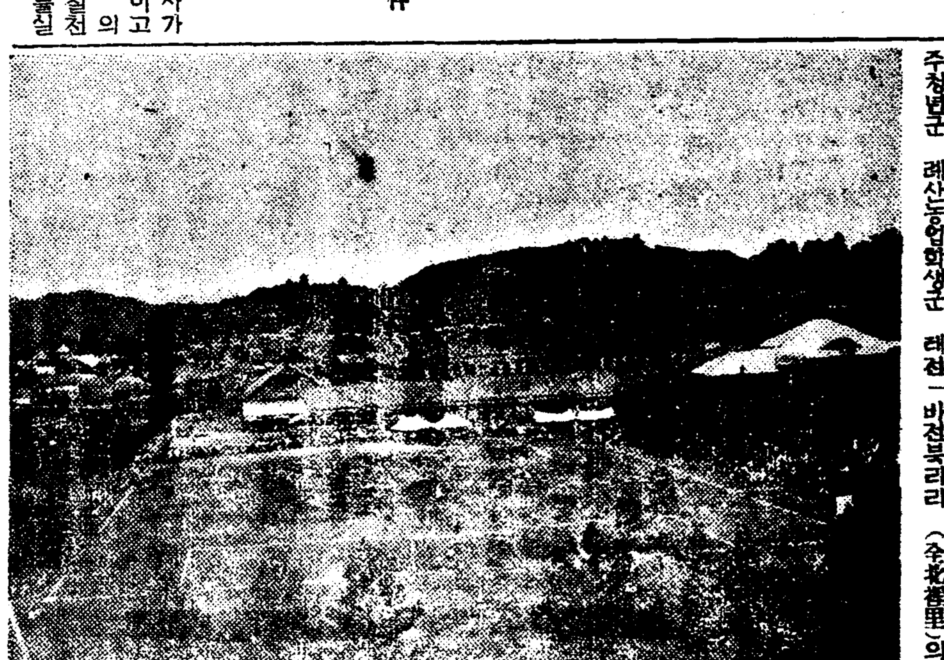
南朝鮮蹴球大會

公州運動史上初有의大盛況

最後勝利는公州軍

【公州】 긔보=본보공주지국주최로 청년학도의 체육장려를목적한 제이회남조선축구대회는 예정대로 지난이십팔일오전구시 정각에 당지고등보통학교운동장내에서 개최하엿는데 참가단체는청주청년군 례산농업학생군 례전청년군 조치원청년군 공주고보군의「에이」「비」량팀 공주청년군의「에이」「비」량팀으로 입장식과 작년우승기반환식이잇슨후 수천관람객의박수환호로 경기가 시작 되엿는바 전북리리(全北裡里)의 출전군은 수속불비로 참가불능되야 유감을남기고 본사를비롯하야 각사의축전이답지하얏다 회장은자못긴장하야 일회전이끗나고 이회전준결승전에드러가 례산농업군과 청주군의 악전고투의 묘술이연출하야 청중의 박수성은 장내가 진동하는중 마침소낙비(驟雨)가나림도 불구하고 진행하다가 청주군이분패되고 필경의 결승전은 례산농업군과 공주청년군으로 최후결승하게되야 례산군이준결승전의 피로를 입어 우승의영예는 공주군에도게 라가고 대회는 동일오후칠시경에 폐막되엿다

◇寫眞…大會會場全景



"中堅青年"의 蠻勇

洞里老婆를 刺殺

犯行原因는 精神異狀에 基因?

盈德郡下의 殺人騷動

【盈德】 경북영덕군 영덕면 구미동(盈德郡盈德面九美洞)이백사십이번지 신달기(申達基)(三〇)는동촌중견청년이라 명목하에 동리각사업을 지도하여오며 각관공서와 일반에게 신임을 바더오든바 돌연히 지난이십칠일오후 칠시경에 그이웃노파 황계상(黃啓上)(六〇)이가부근밧(田)에서 감자(甘藷)를캐는것을 칼로목을 여덜군데나 난자하야 현장에서 즉사케한바 이급보를접한 영덕경찰에서는 사법주임이하 총출동으로 김공의(金公義)를 대동하고 현장에 급거하야 가해자를 즉시 체포하야 취조중인데 원인은아직 미상하다하며 정신이상이나 아닌가 추측된다고한다

徹底한 旱害對策으로

水利事業促進運動

當局의 微溫的政策을 排擊코

慶北農本會서 近近陳情

【大邱】 경북도내 대지주로써조직한 농본회(農本會)에서는 수리불안전답회생책(水利不安全畓回生策)으로 수리사업(水利事業)을 계속 실시하도록 촉진운동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여 근근 조선총독부의 의향을 타진하는 동시에 진정하기로 결정되엿다고한다。

긔보한바와가티 경북일대의 수리불안전답 십만이천이백사십사정보는 현재 수답에서 밧(田)으로 지목변경(地目變更)등의 전환으로 말미아마 농촌경제에 잇서 막대한 대타격을 주게되엿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수리사업을 전연히 중지하고 금년도예산에 이만사천여원의 도비를 계상하고 한발대책(旱魃對策)으로 종래로부터 시설되여잇든 류지(溜池)와 보(洑)등의 일만사천오백삼개소를 개수(改修)하는 동시에 농민자력(農民自力)으로써의 수리계(水利契)를 장려하야 한해해제를 계획하다는바 이역시 미봉지책에 불과하다고한다

그럼으로 그피해가 년년히증가하고 잇스므로 경북농본회에서는 대책을 강구한결과 본격적으로수리사업촉진운동이 대두되여 조선총독부에 진정하리라한다

湖南蹴球大會

海南支局後援

來八月八、九兩日

【海南】 계몽운동군은 또다시체육계로 진출하야 맹렬히활동하려는 재경해남학생친목회(在京海南留學生親睦會)에서는 하긔를리용하야 각지에서 문맹퇴치에 다대한공헌을 앗기지안는바 금년하긔에는 다시새로운 계획을세우고 본보해남지국의 후원아래에 래팔월팔、구양일에 해남공립보통학교 운동장에서 제일회 호남축구대회를 개최하리는바 만흔팀의참가를 바란다하며 상품에잇서서는 우승긔와특별부상이잇스리라한다

山林主事가 被訴

無辜良民毆打코

【槐山】 충북괴산군칠성면외사리(槐山郡七星面外沙里)정(鄭)씨종중에서는 지난이십사일에 괴산군 산림주사 강재인(姜在仁)씨를 상대로 괴산서에 고소를하엿는데 고소내용은 정씨종중소유림야가 해면쌍곡리(雙谷里)에 일천사백여정보가 잇는데 금번에 산화가 이삼차 발화되엿슴으로 방화혐의자로 정양택(鄭陽澤)을 취조하다가 구타하야전신에 중상을 가하엿슴으로 이에분개한 정씨종중에서는 진단서를 첨부하야 고소를 한것이라한다

鄭門代表 鄭雲華氏談

종중소유림야 일천사백여정보가 잇는데 강산림주사가 나의당질 리택(利澤)이와 상의하고 윤도혁(尹道赫)이라는 사람을 산림감시원으로천거하야입산료를밧는다는 말을듯고 감시원이 필요업다고 해약시키엿드니 그에반감을 품고 양택이를 방화조사한다는 미명하에 구타를하야 사주일치료를요할 중상을 시키엿슴으로 분함을 참지못하야 고소를하엿소 운운

山林主事 姜在仁氏談

정양택이말이 정리택(鄭利澤)이가 산에다 불을놋코 벌채허가를 내랴고 방화를 하엿다기에 정양택에게 무러보즉 모다 부인하기에 두어번 뺨을따린것은 사실이나 무수구타를한일은 절대업소 운운

朝鮮教育界功勞者

故李圭寅翁追悼會

二十七日大邱公會堂에서

【大邱】 긔보=조선교육사상에큰공적을 남겨준 고수봉리규인옹(故秀峰李圭寅翁)의추도회는이십칠일 대구공회당 대강당에서 개최되엿다

수봉옹의 생전업적을 충정으로 숭배한남어지 이추도의뜻을 표하기위하야 대구공회당 대강당에서는 우리사회를 위하야 향상만히 힘써오든 유지제씨 다수가 참석한중 경주고보긔성회(慶州高普期成會)대표로서 부읍장 군수등이 참석되엿스며 수봉옹의 유족으로서 리채우(李埰雨)씨가 식장정면에 엄숙히 좌정하고 잇섯다

정각열시반이되자 발긔인 대표로서 김하정(金夏鼎)씨의개회사로 식을열게되엿는데조룡긔(趙龍基)씨로부터추도문의랑독이잇슨후순서에 따라 일제히 긔립하야오분간묵도가 잇고 최두환(崔斗煥)강유문(姜裕文)김성국(金成國)등 다수유지의 추도사가잇슨다음 유족 리채우씨의 답례로서 식을마치엿는데 이날에환환을 진정한 경호관(警湖館)의 다수 제씨에 대하야 발긔인측에서는 감사를표한다고한다

◇寫眞…當日式場光景

警察署增設?

【大邱】 경북경찰부(慶北警察部)에서는 비상시긔를 압두고 대구부내 경찰긔관을 더욱 확장하고저 긔보조사중이든바 조사가끗나매따라 대구부내에 일개의 경찰서를 증설하고저 조선총독부에 이십팔일 신청하엿다 대구부내에 달성경찰서(達城警察署)를 증설하고 종래에잇서서 대구경찰서가 부내의관할를 담당하야 오든것을 부외농촌의집묵면은 달성경찰서의 관할로정하고 농촌경찰의 만전을긔하다하며 대구경찰은 단지부내만국한하야 도시경찰에 만전을 긔하다고한다

出入口의增設로

市場紛糾遂解決

【全州】 전주부영 시장개설관계에 본정통정면으로 종래팔개소의 출입문이잇든것을 두곳에만 문을 내게되것이 발단이 되야 지난 이십이일 전주부회에서부의원과 반수가 절대로 반대하는일방 현장조사를 하는등 사태가 험악하다함은 당시보도한바잇섯거니와 그후 부당국에서는 부민의 편의과 상인측의의사를 참작하고금번정문신축 설계서에 두개의출입문이엿든것을 사개소로 변경하게되여 일시분규를 거듭하든시장 출입구문제는 원만해결케되엿다고한다

晉州	中和	廣州	長城	河東
納涼音樂과演劇의밤	青少年邑面對抗蹴球大會	第八回近畿蹴球大會	第五回南朝鮮個人庭球	南朝鮮野球大會
▲時日 八月一日午後八時半	▲時日 八月一、二兩日	▲時日 八月一、二兩日間	▲時日 八月二日(雨天順延)午前十時	▲時日 八月一、二日兩日間
▲場所 晉州第一公普校大講堂	▲場所 中和公普校運動場	▲場所 廣州公普校庭	▲場所 長城城南銀行코-트	▲場所 河東公立普通學校코-트
◇主催 晉州第一普校同窓會 學父兄會 母姉會	◇主催 中和體育會	◇主催 廣州青年會	◇主催 在京長城留學生學友會	◇主催 東一商會
◇後援 朝鮮日報外三晉州支局	◇後援 朝鮮日報中和支局	◇後援 朝鮮日報廣州支局	◇後援 朝鮮日報外二支局	◇後援 朝鮮日報社外、一支局

黃昏 (145)

韓雪野 作 安夕影 畵

재회(再會)(四)

『벌서 서울은 만히 들엇습니다만 미처 차자뵈지못해서 미안합니다。 압흐로 만히 지도해주십시오』

하고 준식이가 먼저 말을꺼내자 경재도

『천만에요………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공손히 말하엿다。

『저、바루 댁 회사에 다니는 직공입니다。 게재가 업서서 한번도 인사드릴 긔회를 엇지못햇습니다만、김선생 얘긔만은 전부터도 잘 알고잇섯습니다……그전에 한번 공장 구경을 오신일이 잇지안습니까? 사장과 함께……』

『네、네、잇습니다……저도생각만은 늘 여러분을 맛나뵈엿스면 하고 잇습니다만 이러저러 그러케 못되엇습니다』

『인제 저이가 차자가서 조훈 말슴 만히 듯겟습니다』

『아니옵시다……뭐 아는거라구 잇서야지요』

『천만에도 선생 말슴은 전부터도 려순씨한테서 자주들엇습니다……』

하며 준식이가 려순을 보는 때에 경재도 무심히 그에게눈을 주엇다。

순간、까닭업시 이상한감생이일어낫다—저사람이 려순의편지피봉을 써주엇나? 하는생각도낫다。

그리고 또 그것과는 별도관계업는 생각——세상의 남녀관계란 야릇한것이여서 종처럼균형(均衡)이 잡히지못하는건가? 하는 왕청된 생각도 낫다。

그리며 그는 이와가티 짝이지운 부부의실례 멧가지를 또 생각하엿다—— 안해는 아메리카유학까지 하고와서 사교계에 이름을 날리고 잇는데 남편은 이름조차 아는 사람이업는 그런 내외의 한쌍을 생각하엿다。그리고 또 제아들에게 편지하는데 부상서(父上書)라고 쓸만치 무식한 남편을 둔 지식계급의 한 안해도 생각하엿다。

이것은 평소 심상히 보아온 사실이엇고、또、려순이와 준식이에게도 그다시 해당할거 업는생각임에도 불구하고、그어느때보다도、그어느자리에서보다도 이시간、이자리에서보다 명확히 의식에 떠오르는것이엇다。

그리고잇슬때에 준식이가 다시 말을계속하엿다——

『려순씨 하고는 바루 한고향입니다。선생댁에 오래 페를지치고 잇는것도 잘압니다。그리고 도 회사에까지 소개 해주신것도……』

『아、그러세요? 그러면 벌서부터도 잘 아시겟군요?』

하고 경재는 준식을보고 다음으로 려순을 보앗다

『그럼요。서울 올때에도 함께 왓섯서요。그리고 이웃에서 한때 고향도 가치하구요』

하고 려순은 방긋이 우서가며 지난날의 단편 단편을 회상하야기하엿다。

『그런걸、웨 한번도 말슴하시지 안햇서요?』

『그저 그러케 돼서요。호호……』

그리자 준식이가 얼골 그탈을 바다갓다——

『뭐、말할만한 사람이 돼야지요、하하하……』

준식이가 이러케 답하고나서는 잠깐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안햇다。

경재는 초면인데다가 별로 절축해보이업는 사회의 사람의 처나친 존대를 밧고보니 도리혀 몸가지기가 비편하엿다。 그리고 암만해도 이자리의공기를 어룹인식할수업고 또 려순이가 장차 무슨말을 꺼낼지 몰라서 은근 뒤숭숭한 생각도 낫다。

——대체 무슨말을 하랴는것이길래 려순이 혼자가 아니고 딴사람(준식)을 엇처노앗슬가? 준식이가 꼭 잇서야할 이야긴가? 그러치안흐면 려순이가 이야기를 꺼내기전에 준식은 자버릴것인가?

만일 려순이자 청하게안흘때 준식이가 우연히 온것이라면 려순은 이야기를 꺼내기위하야 준식에게 자리를 피해 달라고 해야할것이다 그러케 말할수업다면 려순은 이야기를 꺼내지 업슬것이오 경재자신도 두사람만의 이야기를 말해낼수 업슬것이다。

그러나 얼마를 지나려 보아도 준식은 이러나라는 계색이 업고 려순이도 그를 꺼리는눈치가 업다。그래서경재는속으로 려순이가 위정 준식을 청해온것인가? 하고 생각하며 부ㅣ중 모자를 집어들엇스나 홀직 나와버리기도 무엇하고해서 모자를 무릅에 씨어며

『참、그새 시골 다녀오셧다지요?』

하고 려순에게 물엇다。

『네……』

려순은 이러케대답하며、그만둘아가라는 경재의동정을 살피듯이、

『회사로 자주나가십니까?』

하고 따회제를꺼냇다。